붓다가 보여준 경지 "갈애를 떠나라"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1. 인간의 이상적상태 ㊦

평정(平靜)하며 자유로운 사람

잘 검토(檢討)해 보면 열반과 같은 이상적 상태를 애써 구하는 것은 다만 불교인만은 아닐 것이다.

만일 이 소망이 불교인만의 것이라면, 우리들은 오히려 의심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소망을 음미(吟味)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소망은 결코 불교인만의 소망은 아니며, 넓게 인류의 소망임을 알 수 있다. 언어 표현으로 보아서 가장 비슷한 것은 스토아의 철인(哲人)들이 구극(究極)의 이상으로 생각한 아파테이아(apatheia)의 경지(境地)이다. 그들도 또한 인간의 불행은 격정(激情, 파토스 pathos)에 의해서 이성(理性)이 어지러워지며, 영혼이 구속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격정을 떠나서 자유스러운 심경(心境)에 있으면서 선(善)하며 행복한 경지(境地)를 생각하는 경지를 아파테이아(격정에서 자유로운 상태)라고 불렀다.

회랍 사람들이 아타락시아(ataraxia)라고 부른 이상의 상태도 이것에 가깝다. 아타락시아라는 것은 이미 흔들어도 어지럽힐 것이 없는 내적평정(內的平靜)을 뜻하는 것이며, 열반의 이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중국의 옛 시인은 '무사(無事), 일월(日月)은 길도다, 불기(不羈) 천지(天地)는 넓도다' 라고 노래하였다.

이것이 지적하는 바도 또한 불교인이 생각하는 이상의 상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근세(近世)에 있어서도 칸트(Kant)가 자유를 설명하면서, 실천이성(實踐理性)(의지)이 자기의 법칙에 따름으로써 '자율(自律)의 자유' 가 있으며, 자연적인 욕망에 움직여짐으로써 '기수(氣隨)의 타율(他律)' 이 있다고 말한 것에도 그 사고방식의 바탕에는 역시 같은 뜻이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붓다가 이와 같은 비유와 표현으로써 이 이상의 경지를 그려냈을 때 그는 결코 '회신멸지(灰身滅智)' 의 상태를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거기에 '불이 꺼지듯이' 멸(滅)하는 것은 갈애(渴愛)이며 탐욕(貪慾)이며, 번뇌이다. 인간 그 자체는 여기에서 '멸하며 떠나서' 어느 곳에 '가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여기 지상(地上)에 있다. 그러나 그는 원래 그대로의 그가 아니다. 전에 불안하며 괴로운 인생을 등에 걸머지며 살고 있었던 그는 이제는 갈애 번뇌가 멸함으로써 평안하며 자유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갈애의 한 법(法), 모든 것을 예속(隷屬)하게 한다."

"갈애를 떠나서 모든 속박(束縛)을 끊는다."

"사문(沙門)은 욕망을 변지하며 언제나 자유인이다."

이러한 옛 경전의 말씀들은 명쾌 솔직하게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여기에서 번쇄소극(煩?消極)적 후세(後世)의 열반론(涅槃論)을 버리고 붓다가 그려서 보여준 이 이상적인 상태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自由)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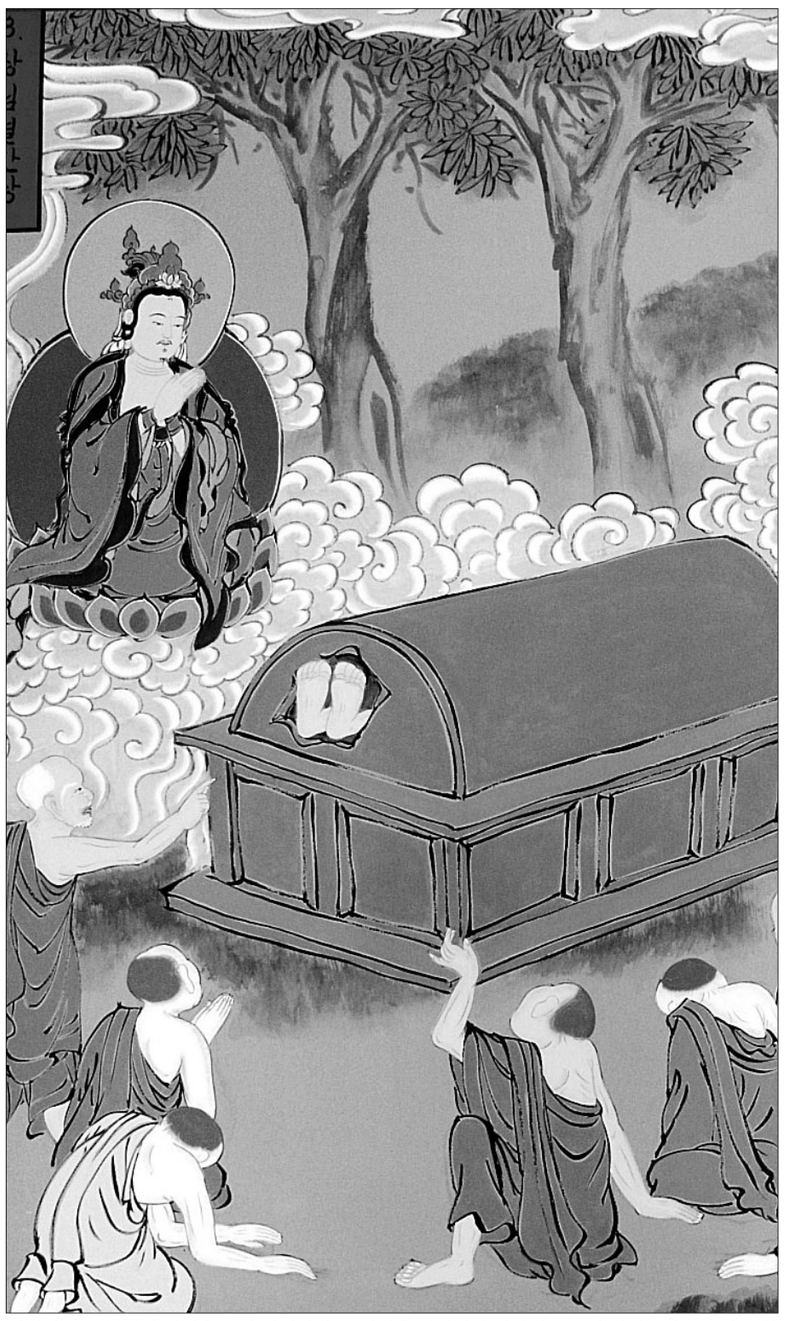
여기에서 우리들은 '열반' 이라는 표현과 비유로써 지적된 불교인의 궁극 이상의 경지가 바로 자유 그것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원하며 구하고 있는 것도 또한 자유라는 말로써 표현되고 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자유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것도 또한 명백히 해두어야 할 문제이다. 이것을 명백히 하지 않는다면 불교를 오늘날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떤 옛 경전의 하나는 부처님이 "무엇이건 다른 것에 예속(隷屬)하고 있는 것은 모두 고(苦)이다. 모든 주권(主權)은 락(樂)이다" 라고 설명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것이 설명하는 바는 틀림없이 오늘날의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에 통하는 것이 있다. 모든 자유를 향한 희구(希求)는 불안을 고(苦)로 하며, 속박(束縛)을 고로 하며, 예속(隷屬)을 고로 하는 인간의 본성(本性)에서 생겨난다.

사람은 모두 이러한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런 것에서부터 해방이 되어 자주(自主), 자유(自由), 자재(自在)하기를 원한다.

붓다도 또한 이러한 소망을 이난 최고의 소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생사(生死)의 불안 속에 있는 것에서부터 해탈하려고 생각하였다. 애증(愛憎)의 속박 속에 있는 것도 번뇌에 예속되어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품는 자유의 소원도 같은 요소를 안고 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공포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그리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소원한다. 또 빈곤과 악법(惡法)이 우리들을 속박하고 있음을 싫어한다. 악한 권력이나 정치가 우리들을 예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 그리고 그 속박과 예속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불안, 속박, 예속에서 자유롭게 되려는 소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팔상성도 중 부처님 열반을 그린 쌍림열반도. 열반은 탐진치가 괴멸된 궁극의 상태로서 불교의 종착역 이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을 불안이라고 하며 무엇을 속박이라고 하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이며 어디를 향해서 자유를 구하는가 하는 목적 설정에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불교적 자유의 소원은 내 마음 속에 방해자(妨害者)를 인정하며 이것을 이겨냄으로써 내 속에 있어서 자유를 확립(確立)하려고 한다. 오늘날의 소원은 나의 바깥에 악한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데 있다. 전자(前者)의 소원을 소극적이라고 하며 후자(後者)를 적극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와는 반대로 후자를 소극적이라고 하며 전자를 더 적극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시인(是認)하며 어떤 것을 부인(否認)하건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불교적 자유의 소원이 우리들의 내부를 향해서 기울어지게 된 것은 그 후에 보살사상(菩薩思想)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될 여지(餘地)를 남기고 있다.

그와 동시에 오늘날 자유의 소원이 오직 외부(外部)로만 향해 있는 것은 역시 얼마 후에는 안에 있는 자유의 소원 그 내면적인 양심에 의해서 보충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바로 여기에 현대를 향한 불교의 발언권(發言權)의 초점이 있는 것이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불교의 세계관에 대하여

문 그대가 오행생성의 수가 이십사기(二十四氣)의 착종(錯綜)에 근원함을 분석함이 이미 저와 같이 정미로워 내가 아직 듣지 못함을 들었으니 '가르침' 에 도움이 있다 말할 만하다. 불씨(佛氏)가 말한 일월운행(日月運行)의 영허(盈虛)와 한서(寒暑)의 설(設)이 역상(歷象)과 같지 않으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답 부처님이 가르침을 드리우심이 자기를 밝히는 것을 귀하게 여겼으니, 자기라는 것은 이치이다. 자기의 건곤조화가 외부의 건곤조화로 더불어 둘도 없고 다름도 없어 현상적인 일이나 본체적인 이치가 모두 실제로 돌아감을 밝히는 이것이 묘지(妙旨)이다.

이러기 때문에 숙세(宿世)의 영골(靈骨)이 있는 자는 한번 듣고 천 가지를 깨달아 의심과 걸림을 홀연히 잊어버리고, 중하(中下)의 근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집착하여 보시(布施)와 공덕(功德)으로 시비(是非)가 봉기(蜂起)한다.

부처님이 이미 세계로써 신기(身器)에 비교하였으니, 무릇 건립한 것이 서로 같지 않음이 없다. 경(經)에 말씀하기를 수미산(須彌山)이 솟아난 땅 · 들어간 땅의 그 양이 고르게 팔만 사천 유순(八萬四千由旬)이 되는데 분리하여 천지가 되었다 한 것은 사람의 허리 위와 허리 아래와 같으니, 그 형세를 평등히 나누어 위는 양이 되고 아래는 음이 된다.

"수미산 정상은 도리천(?利天)이 되는데, 제석(帝釋)이 그 중앙을 주재하고, 일월성신(日月星辰)이 차례로 그 아래 거한다" 고 하는 것은 사람의 두개골이 형질(形質)의 머리가 되어 총명(聰明)한 제근(諸根)이 얼굴 부위에 모여서 위치함과 같다.

해와 달은 안목(眼目)을 말함이고, 사주(四洲)는 사방세계(四方世界)이다. 무릇 사람의 보는 것이 남쪽은 완전하게 보고 북쪽은 빠져서 보지 못하며, 동쪽 · 서쪽은 그 반으로 나뉘었다.

그러므로 해와 달이 동주(東洲)에 운행하여 비추는 것은 아침으로부터 정오(正午)에 그치고, 서주(西洲)에 비추는 것은 정오로부터 저녁에 그친다. 그리고 남주(南洲)에 비추는 것은 완전하지만 그 북주(北洲)의 경우는 광명이 미치지 못한다.

동쪽은 해가 솟아오름으로써 아침을 삼고 일중(日中)으로써 저녁을 삼음으로 후일(後日)의 분(分)이 비고, 서쪽은 일종으로써 아침을 삼고 해가 지는 것으로써 저녁을 삼으므로 초일(初日)의 분(分)이 부족하다. 방향이 치우치고 땅이 궁벽하여 광명의 비춤이 완전하지 못하니, 이것이 부처님이 여기에서 세상에 응하지 않으신 까닭이다.

세상 사람들이 또 '수미산을 고리처럼 돈다' 는 말이 정상적으로 보는 일월의 출몰(出沒)로 더불어 같지 않음을 의심하는데, 이도 또한 그것이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함이다.

무릇 이른바 '안으로는 안목이고 밖으로는 일월이다' 고 한 것은 다 기(氣)일 뿐이니, 앞에 말한 '운동하여 쉬지 않는다' 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하늘에 있어서는 일월이 되어 세계를 고리처럼 돌아가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목이 되어 또한 고리처럼 돌아가며 쉬지 않는다.

또한 고양이의 눈 속에 안정(眼精)이 시간을 따라 회전하여 잠시도 휴식하지 않음과 같으니, 고시(古詩)에 말한 '고양이 눈 속에 주천(周天)을 정할 것이니, 자오(子午)가 바늘을 드리우면 묘유(卯酉)가 둥글다. 진술축미(辰戌丑未)는 달걀과 같고, 인신사해(寅申巳亥)는 감씨와 같다' 고 하였으니, 대체로 증거할 만한 것이다. 또한 경에 말한 '수미산' 이라는 것은 세계를 포괄하여 말한 것이다. 남섬(南贍)은 배가 되고, 동쪽 · 서쪽은 옆구리가 된다. 그렇다면 횡론(橫論) · 수론(竪論)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한갓 그 수적(竪的)인 것만 집착하고 그 횡적(橫的)인 것을 매혹(昧惑)하여 '고리처럼 돌아간다' 고 함으로써 허탈함으로 여기는 자는 잘못이 아니겠는가.

자신 · 외부의 건곤조화는 다름이 없어
본체적 이치가 실제로 돌아감이 '妙旨'

세상에서 덕의(德義)를 헤아리지 않고 외람되고 사나워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이라 말함과 같으니, 그 추하지 않다 하겠는가.

또한 일식 · 월식이 있음은 임금의 권력은 약하고 신하의 세력은 강대한 소치로 그러함이니, 그것은 수라가 제석(帝釋)으로 더불어 권력을 다툼과 닮지 않았다 하겠는가. 부처님이 보이신 그 뜻이 은미하니, 이것은 이른바 "저기서는 그 자취를 전공하나 이곳에서는 그 본성을 밝힌 것이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전화 010-7415-0803

도무지 잠이 안와 ! 자다깨다 좀더 자고 싶은데
잠이 안와 ! 푹자지 못해 ! 쉽게 잠들지 못해!

휴≈힐링베개

미국 FDA 3009241067 승인

~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

♣반듯이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딱 맞는 IQ 가장 높은 천재 베개
♣베개를 베지 않은 것 같은 완벽한 높이라야 쾌면, 숙면, 꿀잠
♣베개 높이가 딱 맞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언제나 그자리!
♣뒤척임 잘되어야 냉병 이기는 진짜 베개
♣푹신, 물렁, 꼬불 너무 높은, 낮은 베개는 버려라
나쁜 베개는 오래 자면 더 피곤, 건강 NO
♣1000명이 3년간 사용한 결론, 여행갈 때 100% 가지고 다니는 베개
♣스트레스 겹겹이 쌓여 못자고, 못쉬고, 못풀고
침대에 쓰러지면 뭐해 밤새 불면증과 전쟁 고생 뿐!
베개 높이 안맞아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바른 빠른 치유
♣어린이는 조금만 자라도 베개 높이 조절해야 한다(중요)
♣베개, 침대 아무리 좋아도 입벌리고 자면 끝짱
(입안 건조, 침마름, 눈, 코, 얼굴 건조 원인)

※ 템플스테이에서 와선 삼매를 100% 체험 할 수 있는 유일한 베개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